

[축산업 수급 영향 변수 점검: 기후, 수입]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기후: 폭염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p.9~)

국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의 빈도·강도가 증가하고 폭염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7일 기준 폭염으로 약 10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특히 돼지와 가금류가 고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주요 사육지역의 폭염 장기화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폭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고온기에는 충분한 물 공급과 환기를 유지하고, 사료 급여 조정 및 냉방장치·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을 통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수입처 다변화와 수입 확대(p.29~)

국내 축산물 수입은 소고기는 호주·미국, 닭고기는 브라질 중심이며 돼지고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어 최근 수입처 다변화와 수입량 증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수입이 확대되더라도 장거리 운송과 육질·소비 특성 차이로 한우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가 냉동 원료육의 대량 유입 시 육가공품 시장에서 국산 돼지고기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한돈 농가와 경쟁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스페인산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스페인산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입 수요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여부와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가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